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

묵은 책도 새 단장... 험한 사회분위기에 경종 울려

최근 '지존과'다 '온보현사건'이다 '박한상사건'이다 하며 반인륜적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인성교육'의 절실함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가정과 학교, 사회속에서 폭넓게 이뤄지는 교육의 본질이 올바른 인간을 길러내는 데 있다면, 그러한 인면수심의 잔악행위들은 우리네 교육현실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도덕·윤리부재 여파는 서점과 출판에도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우면서 일명 '도덕 재무장 도서'들이 고전·신간 할것없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서점 창고에 쌓여있던 '명심보감'류의 고전 修身書들이 다시 햇빛을 보고, 출판사들은 일명 '훈육서'로 불리는 책들을 내놓아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마음을 달랜다. "수신서를 읽는다고 하루아침에 마음가짐이 바로잡히는 것도 아니고, 도덕을 재무장하자고 외쳐댄다 해서 무너져가는 사회윤리가 저절로 서느냐"며 부산스러움에 일침을 놓는 소리도 들리지만, 이런 책을 통해서라도 가정과 자녀교육문제를 다시금 되돌아보려는 이들의 마음이 서점에도 의 발길을 분주하게 한다.

창작과비평사도 최근 창비교양문고 31권째 책으로 '가정독본'을 새롭게 단장해 내고, 백산서당은 '마음이 한가로워지는 책' 시리즈를 마련, 「채근담」 「선가귀감-거울을 보며 닦는 마음」을 최근 펴냈다. 이같은 古典 「재단장」과 아울러 새로운 '현대 훈육서'들도 다양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글에서부터, 교사가 학부모에게 당부하는 책들이 있고, 예의범절, 부모봉양에 이르기까지 여러종나와 있다. '수신서'로 불리며 예부터 교육서로 활용돼 왔던 「효경」 「예기」 「내훈」 「명심보감」 등도 요즘들어 다시 읽히는 고전들이다.

아버지들이 쓴 책 많아 이채

최근 다양한 출간을 보이는 '훈육서'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아버지들이 쓴 책이 많은 점. 지난 87년 말 번역되어 100만부나 팔렸던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필립 체스터필드, 을유문화사)와, 역시 같은 시기 나와 인기를 끌었던 「사랑하는 아빠가」(패트릭 코널리, 김영사) 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띄운 편지모음이 상당수 눈에 띄는데, 특기할 만한 현상은 외국 번역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국내 필자가 쓴 책이 크게 늘어났

사회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출판종수가 다른 때에 비해 는 것도

사실이고, 서점축이 신·구간을

한자리에 모아 '특수' 분위기를 조성한

덕에 독자들의 반응도 유달랐던 것이

사실이지만, 정작 가정교육의

지침서로 삼거나 무너져가는 윤리·

도덕을 바로잡는 수신서로 "한권쯤

서가에 꽂아두고 싶은" 책은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 공통된 아쉬움이다.

다는 점이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이세용, 정연사) 「인생은 예행연습 없는 마라톤이야」(이용호, 민예원) 「아들아 함께 이 길을 가자」(최성일, 밀알) 「내아들의 멋진 인생을 위하여」(황인수, 큰산) 「세상에 홀로서는 너를 위하여」(캔터 너빈, 한마음사) 「부끄러운 A학점 보다는 정직한 B학점이 낫다」(박광철, 비전) 등이 최근 나왔거나 1~2년 사이 출간된 책들. 이 가운데 전체육부장관 故이영호씨의 「인생은...」은 출간 두 달만에 5만부가 팔려나가는 등 최근 사회분위기와 연결되면서 많은 부모들의 관심을 모은 책이다.

「아들아, 사랑하는...」은 얼마전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던 「도피성 해외유학생」 아들에게 띄운 아버지의 편지글 모음. "고등학교 시절부터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고... 대학입시에도 실패"한 '평범한' 아들들 둔 아버지의 이야기여서 더 눈길을 끌었다. 次善으로 보낸 유학길이었기에 더 애가 쓰인 아버지는 군대 시절 편지로 아내의 마음을 붙들었던 것을 상기하고 그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5년6개월 동안 쓴 200여통의 편지 모음인 이 책에는 아들을 훈계로 '설득' 하려기보다 아버지의 생각들을 진솔하게 털어놓음으로써 부자간에 단련된 빗장을 연다. 그 아들은 어긋남이 없이 5년여의 유학을 잘 마치고 왔음은 물론이다.

대부분이 국내 저자들이란 점에서, 흔히 '嚴父'라 하여 자질한 말보다 무언의 행동으로 자식들에 귀감이 되고자 했던 우리네 전통적인 아버지상이 지금에 와 많이 달라졌음을 가깝게는 이런 책들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서점에 마련한 특설코너.

반면, 아버지들의 편지글과는 달리 섬세한 인정으로 넘쳐나는 어머니들의 글도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아버지들의 '아들아, 자녀들에게' 처럼 대상을 명확히 거명하면서 삶의 큰 열개인 인생관을 논하기보다, 일상속에서 화제를 찾아 부모 자식간의 정을 쌓아가는 글들이 많다. 연전에 나온 '북카페' 조은일씨의 「빵점엄마 백점일기」(공간), 최근 나온 「행복쪽지」(그린나라)의 저자 조양희씨의 「도시락 편지」(디자인하우스)는 요즘 젊은 어머니들의 자녀사랑·자녀교육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책들이다.

묵은 책 창고에서 나와 다시 햇빛

「탈무드」로 대표되는 일명 '지혜서'들도 최근의 사회분위기를 타고 묵은 곳으로 다시 나왔다. 80년대 출간된 「젊은이여 인생을 이야기 하자」(앙드레 모로아)가 재등장한 것에 서부터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로버트 풀컴) 「세상을 보는 지혜」(쇼펜하우어) 같은 출간된 지 몇해가 된 기간 책들도 다시 독자들의 손길을 기다린다.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인생관에 물음을 제시하고 인격형성과 자기수양에 필요한 지혜를 일러주는 「게으른 천재보다 공부하는 바보가 좋다」(사무엘 스마일즈, 문학관)는 눈길을 끄는 신간이다.

창작과비평사에서 「가정독본」이 나온 것과 함께 「인생의 기본예의」(리옥규, 계명사) 「청

소년을 위한 생활예절」(성균관출판부, 성균관) 「어느 가정의 예의범절」(김신항 외, 정일출판사) 「父母恩重經」(권오석 역, 흥신문화사) 등 가정내 예절문제, 부모봉양의 바른 자세를 일러주는 책들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정독본」은 일제하의 뛰어난 교육학자였던 故이만규(1889~1978년) 선생의 1941년도 저술로 일제 민족말살정책의 횡포 앞에서 민족적 여성교육 및 가정교육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씌어진 것인데, 이번에 재출간했다.

저자는 아버지와 자식, 시어머니와 며느리,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 등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지켜야 할 예의와 가정생활의 지침들에 대해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주듯 자애로운 문체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자녀를 교육하는데 부부가 합심할 것, 자녀에게 항상 모범을 보일 것, 환경을 교육적으로 할 것, 자존심을 길러주고 칭찬과 벌은 법도있게 할 것 등 50여년이 더 지난 지금에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여전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담겨 있다.

이 책들은 대체로 청소년들이 직접 찾기도 학교의 독후감 과제로, 자녀와 마주앉아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사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코너 담당자들은 전한다. 사회분위기가 분위기인만큼 출판 종수가 다른 때에 비해 는 것도 사실이고, 서점축이 신·구간을 한자리에 모아 '특수' 분위기를 조성한 덕에 독자들의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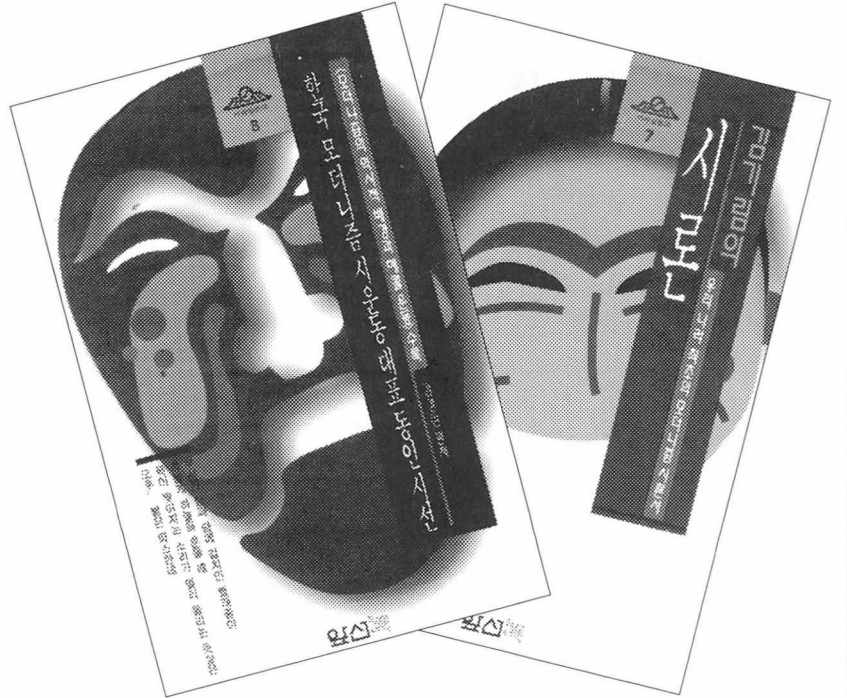
문고 시장을 살리자!

기와집문고

백·년·독·서

기와집문고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화제의 신간



응도 유달랐던 것이 사실이지만, 정작 가정교육의 지침서로 삼거나 무너져가는 윤리·도덕을 바로잡는 수신서로 “한권쯤 서가에 꽂아두고 싶은” 책은 많지않았다는 것이 공통된 아쉬움이다. “인륜의 위기라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수백년 전의 선인들이 참

고했던 고전을 다시 읽자고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 古典을 전범삼아 변화된 사회에 맞게 씌어진 합리적 가치기준의 수신서들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 정혜옥 기자

다음은 종로서적이 ‘도덕재무장운동’을 펼치면서 뽑은 修身書들이다.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古典들로 간단한 해제를 덧붙인다.

明心寶鑑

문자 그대로 ‘마음을 밝게 해주는 보배로운 거울’ 같은 책이다. 명나라 때(1393년) 사람 범립(范立)이 저술한 것을 고려 충렬왕 때 예문관 제학(提學)을 지낸 추적이 우리 교육현실에 맞게 재편찬한 것이다. 유교의 바탕원리인 인·의·예·지·효를 가르치는 교본으로, 조선시대 가정이나 서당에서 어린이 교육서로 널리 사용되었다. 최근 도덕교육용 대학강의 교재로 선정된 수신서의 대표적인 고전.

禮記

선진(先秦)에서 한초(漢初)에 이르는 유가의 논설을 집록한 책. 몸과 마음을 바로하는 것에서부터 일상 먹고 입는 예법 등은 물론, 제사를 지내는 방법, 나라를 다스리는 경륜의 이치, 그 제도와 법도, 나아가 우주의 질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외면적 규율’들을 빠짐없이 다룬 중국고대의 대표적인 예의 범절서이다.

孝經

공자가 그의 제자 증삼과 주고받은 효에 관한 문답을 기록한 것으로, 유학의 기본 경전인 십삼경(十三經) 중 하나. 공자는 효도를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道의 근본으로 삼고, 일반백성보다는 위정자에게 이를 특히 역설함으로써 억압정치가 싹트지 못하게 막았다. 위정자가 먼저 나서 효를 선행할 때 백성들은 화합하고 계층간의 위화감, 빈부의 갈등 또한 사라진다고 설파.

小學

유교경전에서 좋은 글을 뽑고, 효자·충신·열녀의 선행담과 성현의 명언을 골라 모은 책으로 중국 송나라 때의 학자 유청지(劉清

之)가 편찬하고 그의 스승 주희(朱熹)가 감수했다. 원래 한문문장이 난해하여 어린이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책이나 조선시대 초등교육의 교재로 사용됐다. 다른 고전들과 마찬가지로 「이야기 소학」 등으로 쉽게 풀어쓴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老子 道德經

지금으로부터 2500년전 주(周)나라 사람 노자가 지은 것으로 81문장으로 구성돼 있는 단문집. 노자는 앞서 유교에서 말하는 예제(禮制)나 실천도덕 등은 쓸데없는 것으로서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사람들이 지식을 지나치게 구하기 때문이라며, 자아를 버리고 무위자연의 도를 따르면 사회는 평화로워지고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고 가르친다.

菜根譚

명나라 사람 홍자성의 저작으로 제목 채근(菜根)이 ‘나물 뿌리’를 말하듯 쓸데없는 욕심과 재물을 버리고 유유자적하게 사는 도인풍의 생활을 노래한 책이다. ‘모든 것을 포용하라’ ‘후회할 일 하지 마라’ ‘다만 고요하라’ 등으로 풀이될 채근담의 내용을 저자는 불교의 경전이나 도가의 주장에서 따오기도 하고, 떠돌아 다니는 세상의 격언에서 말을 인용해와 인생과 인정을 논했다.

父母恩重經

부모의 은덕을 열가지로 나누어 기린 책이다. 부처님의 언행 가운데 이에 관한 것을 제자들이 간추린 것이다. 잉태하고 지켜준 은혜, 해산할 때 고통받은 은혜, 쓴 것 삼키고 단것 먹여준 은혜, 젖을 먹여주고 키워준 은혜, 더러움을 씻겨준 은혜, 자식을 위해 악업을 거둬하신 은혜, 끝까지 불쌍히여기신 은혜, 걱정해준 은혜 등이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기리며 이를 목각해 용주사에 봉안한 것으로 유명해진 불설(佛說)이다.

기와집문고

1 “1933년 일본의 이와나미문고로 첫 출간”
김소운의 한국 구전 동요
김소운 편저/192쪽/3,800원

“동화문학의 원형, 그 학술적 가치”
한상수의 한국 구전 동화
한상수 편저/288쪽/3,800원

3 “우리나라 최초의 베스트셀러”
김성철의 고쳐 쓴 한국 역사
김성철 지음/272쪽/3,800원

“홍종우, 왜 김옥균을 살해하였는가”
刺客 홍종우
아오야기 미도리 지음/김심은 옮김/358쪽/4,800원

5 “판소리의 정본제시”
신재효의 판소리 여섯바탕집
신재효 편저/강한영 교주/304쪽/4,500원

“산다는 것이 아름다운 숙명이 되어있는
모든 생활인에게 바치는 글”
김진섭의 생활인의 철학
김진섭 지음/275쪽/3,800원

7 “우리나라 최초의 모더니즘 시론서”
김기림의 시론
김기림 지음/242쪽/3,800원

“〈모더니즘의 역사적 배경과 에콜 운동〉 수록”
한국 모더니즘 시운동 대표 동인 시선
김경린 편저/206쪽/3,800원
(계속 펴냅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B/D 723호

읽신책

TEL. 784-4251 · 2 / FAX. 784-4253